

2024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 연말결산

자료제공_ (사)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올해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의 연 매출 규모가 작년의 약75% 수준, 불황기였던 2020년 수준인 약 1151억원에 그쳤다. 사단법인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이사장 김영석)와 아트프라이스(대표 고윤정)가 2024년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의 연말 결산을 발표했다.

국내 미술품 경매사 **10개 경매사**(서울옥션, K옥션, 마이아트옥션, 헤럴드옥션, 아이옥션, 라이즈아트, 에이옥션, 칸옥션, 컨티뉴옥션, 토탈아트옥션)에서 1월부터 12월 말까지 진행한 온·오프라인 경매의 분석 결과 낙찰총액은 약 **1151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참고로, 이는 각 국내 경매사(해외법인 포함)의 주류, 명품, 오피스텔 등 기타 품목을 제외한 **모든 순수미술품의 항목별 낙찰결과를 합산한 것**이며, 서울옥션 제로베이스와 이브닝 경매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집계 일정상 12/19 서울옥션 온라인, 12/20 에이옥션 온라인, 12/21 · 12/28 토탈아트옥션 온라인, 12/23 · 12/30 · 12/31 K옥션 온라인은 결산에서 제외되었다.)

2024 미술시장 거래량 | 2024년 미술품 경매 **낙찰총액 약 1151억원**은 '2023년 약 1535억원, 2022년 약 2360억원, 2021년 약 3294억원, 2020년 약 1153억원' 등 **지난 5년간 비교할 때 최저 수준**으로, 현재 미술시장 경기가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참고로 **낙찰총액, 출품작, 낙찰작, 낙찰률, 개인 낙찰총액 등 거의 전 부문이 지난 5년간 대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4 총출품작 낙찰작 · 낙찰률 | 전체 집계결과, '총출품작은 22,934점 · 낙찰작 10,641점 · 낙찰률 : 46.4%' 등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지난 **5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던 2023년도의 수치보다 더 낮은 낙찰률과 낙찰작품수를 기록했다.** (2023 총출품작 27,814점 낙찰 14,238점 낙찰률 51.2% / 2022 총출품작 30,985점 낙찰 18,468점 낙찰률 59.6% / 2021 총출품작 32,955점 낙찰 22,235점 낙찰률 67.47% / 2020 총출품작 30,276점 낙찰 18,349점 낙찰률 60.61%)

2024 낙찰총액 1위 | 낙찰총액에서는 **김환기 화백이 약 73억 7480만원**(낙찰률 약 64.71%)으로 1위 자리를 되찾았지만, **작년 대비 약 50% 수준에 그쳤다.** (지난 낙찰총액 1위는 **2023 이우환** 약 134억6555만원, **2022 쿠사마 야요이** 약 276억7436만원, **2021 이우환** 약 394억8770만원, **2020 이우환** 약 149억7000만원)

2024 낙찰가격 1위 | 단일 **작품 최고가** 기록은 **2023년 이레적으로 등장한 조선백자를 제치고 김환기가 50억원으로** 눈길을 모았다. (지난 최고 낙찰가 1위는 **2023 백자청화오종릉문호** 약 70억, **2022 쿠사마 야요이** 약 64억 2000만원, **2021 쿠사마 야요이** 약 54억5000만원, **2020 쿠사마 야요이** 약 27억 8800만원)

2023년은 세계적으로 20점 내외의 희귀한 보물급 유물들이 출품되어 시장을 주도했었다. 특히 고가의 조선백자와 전통 예술품이 다수 낙찰되며 고미술 중심의 특별한 시즌을 보였다. 하지만 올해엔 단색화 중심으로 미술시장이 다시 전개되어, 이전과 유사한 현대미술 중심의 분위기로 복귀되었다.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의 김영석 감정위원장은 "올해 미술시장은 **사회 전반의 총체적인 경기둔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결과이고, 적어도 내년까진 미술시장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그리 밝진 못할 것"이라며, "끝모를 불황을 극복할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대안을 여러 구성원이 협력해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술산업의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해,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미술품 소비 증진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의 장려책 마련도 병행되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번 결산에는 국내 경매시장의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6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세부적으로는 “①경매사별 총 거래량 및 낙찰률, ②경매사별 비중도, ③국내 미술품 경매 낙찰가 30순위, ④낙찰 총액 30순위 작가 비교, ⑤장르별 비중도 ⑥KYS미술품가격지수” 등이다.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매사별 총 거래량 및 낙찰률

경매사	낙찰총액(원)	출품수	낙찰수	낙찰률(%)
서울옥션	48,107,980,000	4,724	2,337	49.47
K옥션	43,556,435,000	6,582	2,808	42.66
마이아트옥션	13,632,219,480	894	481	53.80
아이옥션	3,916,410,000	3,443	2,173	63.11
라이즈아트	2,797,430,000	2,306	1,254	54.38
칸옥션	1,458,550,000	586	314	53.58
에이옥션	899,490,000	1,306	783	59.95
컨티뉴옥션	403,950,000	475	70	14.74
헤럴드옥션	380,230,000	1,271	364	28.64
토탈아트옥션	44,700,000	1,347	57	4.23
총 합계	115,197,394,480	22,934	10,641	46.40

자료제공_(사)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올해의 경매사별 낙찰총액 1위는 서울옥션이 약 481억원을 기록하면서, 약 436억원을 기록한 K옥션을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2023년에 1위의 자리를 내주었던 서울옥션이 다시 정상에 올랐으며, 연간 평균 낙찰률에선 서울옥션 49.5%가 K옥션 42.7%를 소폭 앞질렀다. 한편, 낮은 거래량 대비 높은 낙찰가를 기록한 것은 경매 진행 속도를 조절하여 경쟁을 유도하는 전략 때문이라는 분석되지만, 이러한 방식은 시장의 신뢰도와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매사들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매 진행과 효율적인 경매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미술시장의 신뢰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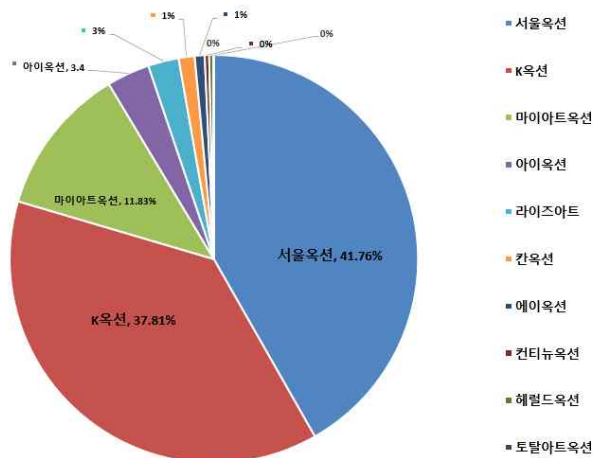
※ 아래 표는 지난 5년간 경매사별 기록을 비교한 것이다.

경매사	낙찰총액(원)	출품수	낙찰수	낙찰률(%)
서울옥션	2024 = 48,107,980,000	4,724	2,337	49.47
	2023 = 54,439,170,000	6,052	3,441	56.86
	2022 = 119,170,171,882	6,250	4,242	67.87
	2021 = 166,648,733,580	6,957	5,544	79.69
	2020 = 43,414,099,442	4,230	2,929	69.27
K 옥션	2024 = 43,556,435,000	6,582	2,808	42.66
	2023 = 58,134,460,000	9,795	3,914	39.96
	2022 = 83,515,650,000	10,456	6,133	58.66

	2021 = 136,008,527,000	14,157	8,273	58.44
	2020 = 51,738,899,000	14,043	7,352	52.35
마이아트옥션	2024 = 13,632,219,480	894	481	53.80
	2023 = 29,528,400,000	1,097	730	66.55
	2022 = 13,241,678,109	989	618	62.49
	2021 = 9,274,636,483	1,036	682	65.83
	2020 = 7,595,250,000	679	443	65.24
아이옥션	2024 = 3,916,410,000	3,443	2,173	63.11
	2023 = 5,125,120,000	3,864	2,553	66.07
	2022 = 4,444,190,000	4,326	3,015	69.69
	2021 = 4,592,120,000	3,590	2,728	75.99
	2020 = 3,949,460,000	3,783	2,870	75.87
라이즈아트	2024 = 2,797,430,000	2,306	1,254	54.38
	2023 = 2,274,810,000	1,804	988	54.77
	2022 = 3,729,270,000	2,163	1,229	56.82
칸옥션	2024 = 380,230,000	1,271	364	28.64
	2023 = 1,664,400,000	739	424	57.37
	2022 = 1,336,350,000	532	339	63.72
	2021 = 1,232,400,000	532	343	64.47
	2020 = 673,600,000	456	266	58.33
에이옥션	2024 = 899,490,000	1,306	783	59.95
	2023 = 1,241,320,000	2,438	1,512	62.02
	2022 = 1,754,680,000	2,167	1,532	70.7
	2021 = 2,888,210,000	3,367	2,605	77.37
	2020 = 2,718,630,000	4,570	3,249	71.09
컨티뉴 옥션	2024 = 403,950,000	475	70	14.74
해럴드옥션	2024 = 380,230,000	1,271	364	53.58
	2023 = 1,172,840,000	2,025	676	33.38
	2022 = 8,672,640,000	2,417	1,240	51.3
	2021 = 8,731,630,000	3,030	1,976	65.21
	2020 = 5,120,720,000	1,890	1,072	56.72
토탈아트옥션	2024 = 44,700,000	1,347	57	4.23
총합계	2024 = 115,197,394,480	22,934	10,641	46.40
	2023 = 153,580,520,000	27,814	14,238	51.19
	2022 = 235,990,029,991	30,985	18,468	59.6
	2021 = 329,434,687,063	32,955	22,235	67.47
	2020 = 115,291,088,442	30,276	18,349	60.61

자료제공_(사)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2. 2024년 경매사별 비중도



경매사별 상위 5순위 비중도를 살펴보면, '서울옥션 41.76% → K옥션 37.81% → 마이아트옥션 11.83% → 아이옥션 3.4% → 라이즈 3%' 순이었다.

특히 상위 2순위 메이저 경매사들의 합산 비중이 80%으로, 2022년의 85%와 비슷하다. 그러나 메이저 경매의 비중이 적었던 2023년에 비해 다소 늘어난 점은 어려운 경기에 대형 경매사 의존도가 높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3. 2024년 국내 미술품경매 낙찰가격 30순위

순위	작가	작품명	규격(cm)	재료	제작 년도	낙찰가	옥션사	날짜
1	김환기	3-V-71#203	213.3×152.6	oil on cotton	1971	5,000,000,000	서울옥션	2024.03.29
2	쿠사마야요이	Pumpkin	53×45.5	acrylic on canvas	1990	2,900,000,000	서울옥션	2024.09.10
3	이중섭	시인 구상의 가족	32×49.5	종이에 유채, 연필	1955	1,400,000,000	K옥션	2024.04.24
4	안중근	인심조석변산색고금동	33.8×137.2	ink on paper	1910	1,300,000,000	서울옥션	2024.02.27
5	박서보	묘법 No. 10-78	130.3×162.2	마포에 유채, 연필	1978	1,000,000,000	K옥션	2024.05.22
6	김창열	물방울 ABS N° 2	198.8×123.5	oil on hemp cloth	1973	980,000,000	서울옥션	2024.06.25
7	이우환	바람과 함께 S8708-5	130.3×162.2	캔버스에 안료	1987	950,000,000	K옥션	2024.03.20
8	김창열	물방울	162×130	oil on linen	1976	950,000,000	서울옥션	2024.03.29
9	강세황	두운지정화첩	21.8×44.3	종이에 먹, 종이에 수묵채색		850,000,000	마이아트 옥션	2024.05.30
10	윤형근	Umber '90-66	161.8×227	oil on linen	1990	700,000,000	서울옥션	2024.03.29
11	알렉스카츠	Cymbidium Yellow on Red	183.5×122.3	oil on linen	2020	700,000,000	서울옥션	2024.09.10
12	박래현	이른 아침	240.7×182	ink and color on paper	1956	650,000,000	서울옥션	2024.01.23
13	윤형근	Umber Blue	97.4×130.2	oil on linen	1976	650,000,000	서울옥션	2024.03.29
14	윤형근	Umber-Blue	174.5×142	oil on linen	1978	630,000,000	서울옥션	2024.02.27
15	페르난도보테로	Men Drinking	99.3×72.3	oil on canvas	2011	610,000,000	서울옥션	2024.03.29
16	쿠사마야요이	Pumpkin(AAY)	16×22.7	acrylic on canvas	2001	600,000,000	서울옥션	2024.02.27
17		감지금니은니묘법연화경	35×12	감지에 금니, 은니	1400~04년 경	600,000,000	마이아트 옥션	2024.06.11
18	쿠사마야요이	Pumpkin	22.5×15.7	acrylic on canvas	1991	560,000,000	서울옥션	2024.05.28
19	윤형근	무제	162×130	oil on linen	1991	500,000,000	서울옥션	2024.09.10
20	무라카미다카시	An Homage to Mangold	78×56	캔버스에 아크릴릭, 백금박	2013	460,000,000	K옥션	2024.04.24
21	아야코록카쿠	Untitled	150×100	acrylic on canvas	2018	450,000,000	서울옥션	2024.04.23
22	천경자	여인의 초상	50×42.2	color on paper	1977	450,000,000	서울옥션	2024.10.22
23	이우환	조응	80.3×100	캔버스에 안료	2004	405,000,000	K옥션	2024.06.26
24	박래현	향연	209.7×240	ink and color on paper	1960년 대초반	400,000,000	서울옥션	2024.01.23
25	박래현	기도	210×241.2	ink and color on paper	1959	400,000,000	서울옥션	2024.01.23
26	박수근	풍경	17.3×29.5	oil on board		400,000,000	서울옥션	2024.02.27
27	이우환	From Line	45.5×53	oil and mineral pigment on canvas	1980	400,000,000	서울옥션	2024.03.29
28	박기준	삼성기유첩	34.5×40.5	종이에 수묵, 먹	1828	390,000,000	칸옥션	2024.02.28
29	이배	불로부터-49-1	227×181	wooden charcoal on canvas	2002	390,000,000	서울옥션	2024.10.22
30	마르크샤갈	Les Amoureux	27.9×22.8	캔버스에 과슈, 유채	1935	380,000,000	K옥션	2024.08.21

자료제공_(사)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올해 낙찰가격 순위 30위에서 주목되는 점은 이전과 달리 국내 작가들이 주를 이뤘다는 사실이다. 10위 안에 9명이 국내 작가들이었으며, 상위 15위 안에는 12명이 포함되어 국내 작가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낙찰총액과 낙찰가 모두 김환기가 1위를 차지했으며, 이외에도 상위 낙찰가 중 비중이 계속 높았던 **이우환**은 3점을 올리며 **근 5년 대비 비중이 낮아져 눈길을 끌었다**. 이는 **국내 작가들의 상승세와 함께 시장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최고 낙찰가 30순위에 생존작가는 7명**이며, 그중에 해외 7명과 국내 2명(**이우환/이배**)이었다.

4. 2024년 낙찰총액 30순위 작가 비교 (녹색=한국 생존작가 12명. 40대=우국원, 김선우 2명)

순위	작가명	낙찰총액(원)	출품수	낙찰수	낙찰률(%)
1	김환기	7,374,800,000	51	33	64.71
2	쿠사마야요이	5,765,500,000	92	45	48.91
3	이우환	5,744,580,000	233	120	51.72
4	이배	5,481,490,000	135	96	71.11
5	김창열	5,159,350,000	152	105	69.08
6	윤형근	4,372,500,000	44	34	77.27
7	박서보	3,519,450,000	165	79	47.88
8	전광영	3,138,900,000	70	59	84.29
9	박래현	2,370,800,000	103	41	39.81
10	아야코록카쿠	2,080,000,000	80	52	65.00
11	이중섭	1,813,000,000	9	5	55.56
12	김종학	1,682,650,000	93	55	59.14
13	최영욱	1,678,500,000	61	55	90.16
14	이강소	1,302,200,000	33	20	60.61
15	안중근	1,300,320,000	2	2	100.00
16	이건용	1,286,400,000	99	33	33.33
17	우국원	1,239,000,000	42	23	54.76
18	천경자	1,119,410,000	116	67	57.76
19	이대원	1,082,980,000	70	37	52.86
20	이왈종	1,032,100,000	127	70	55.12
21	알렉스카츠	1,001,000,000	54	22	40.74
22	김선우	916,100,000	51	42	82.35
23	하중현	860,500,000	27	15	55.56
24	강세황	855,500,000	6	3	50.00
25	박생광	845,700,000	191	88	46.07
26	정선	805,000,000	11	9	81.82
27	무라카미다카시	647,500,000	134	88	65.67
28	김정희	638,090,000	58	32	55.17
29	김홍도	625,000,000	7	4	57.14
30	정영주	621,600,000	13	12	92.31

자료제공_(사)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낙찰총액 30순위 작가 중 생존작가는 16명으로, 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단색화 위주의 작가들 비율이 낮아지고 다양한 성향의 작가와 작품이 고르게 편성되었으나, **올해는 상위 10위 안에 단색화 작가의 비중이 높아지고**, 지속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안정적 투자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30순위 내에 한국의 생존작가는 12명이고, 이 중에 **2위 이배 작가가 큰 두각, 40대는 우국원과 김선우 2명**이었다.